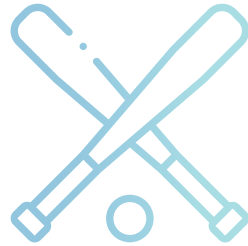


현타 오는 야구장 밖 취재기



!T Chosun

김광연 기자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팬이었던 아버지는 롯데가 서울 원정 경기를 할 때면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아들을 꼭 데리고 다니셨다. 자연스레 어려서부터 야구와 친해졌고 빙그레 이글스(현 한화 이글스)의 홈런왕 장종훈을 무척 좋아했다. 이후 1997년 서울 연고의 LG 트윈스 어린이회원에 가입하면서 고향팀 응원을 시작했다. 야구장에 불이 나게 드나들었고 버스 정류장 가판대에서 정가 500원이던 스포츠 신문을 매일 사서 읽었다. 신문 뒷면쯤에 가끔 선정적인 사진이 실렸던 까닭에 어린 마음에 구입하지 못할까 매번 가슴이 떨렸던 기억이 난다. 당시 신문은 프로야구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자 친구였다. 자연스레 언론에 익숙해졌다.

스포츠 기자로 첫 언론계에 발을 내디딘 것도 인기 스포츠인 야구와 축구를 업으로 삼겠다는 내 강한 의지의 산물이자 필연이었다. 지금은 더팩트로 이름이 바뀐 스포츠서울닷컴의 스포츠기획 취재부에

서 2013년 1월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막내 신분이었지만 마냥 행복했다. 이전까지 돈 주고 봐야 했던 야구 경기장을 무료로 다닐 생각에 들떴다. 기자에게 발급되는 출입증을 걸고 당당히 경기장 기자석에 앉아 경기를 본 후 선수를 직접 인터뷰하는 그림을 떠올렸다.

하지만 처음 주어진 임무는 야구 본 경기와 상관없는 ‘SS야생녀’ 코너였다. ‘야구에 사는 여자’를 뜻하는 야생녀는 야구장을 찾거나 관련된 여성들을 조명하는 인터뷰 시리즈였다. 내심 야구장을 찾아 유명 선수를 인터뷰하고 경기를 뚫어지게 볼 마음으로 가득했던 나로서는 성에 차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다고 회사와 데스크가 시키는 일을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득 안고 야구장으로 향했다.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매주 하나의 야생녀 인터뷰가 나와야 했

기에 야생녀 콘셉트에 맞는 인물을 찾고 곧바로 인터뷰해야 했다. 하지만 야구장 안에서 야구를 응시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전략을 바꿔야 했다. 다음부터는 경기 시작 한참 전 경기장을 찾아 주변부터 탐색하며 특이한 사람이나 야구와 관련 있는 사람을 물색했다. 먼저 말을 건 뒤 시리즈 취지를 한참 설명하고 인터뷰를 시도했다. 역시나 쉽지 않았다.

여러 번 거절당한 끝에 서울 목동야구장 야구용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여성을 포착했다. 야구용품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야생녀 콘셉트에 부합한다고 보고 인터뷰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설득 작업 끝에 어렵사리 인터뷰를 진행한 후 기사를 송고했다. 이번 주 할당량을 겨우 채웠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당 여성 인터뷰 기사는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화면에 걸렸고 상당수의 댓글이 달렸다. 좋은 내용은 거의 없었고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 내 의도와는 다른 전개에 크게 당황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여성에게 전화가 와 “포털에 제 이야기가 도배가 됐다”고 호소했다. 기사를 내려달라는 말까지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인신공격, 외모 평가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라 기사



2013년 8월7일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SK 와이번스전이 열린 청주 야구장에서 류현진과 김태균 유니폼을 입은 한화 팬 장 모씨와 김 모씨의 모습. 김광연 기자

를 내리고 싶었지만, 권한 밖의 일이었다. 회사 입장도 있어 결국 해당 여성을 달랬다. 기사 하나하나의 파급력을 깨달았다.

이후에도 야생녀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야구장 밖이나 관중석을 돌아다녔다. 야구장 그라운드가 눈앞에 보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야구장 밖이나 관중석을 돌며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만 해도 경기장 안 선수보다는 선수를 보러 온 관중을 취재하는 상황에 적지 않게 실망했다.

이런 수밖에 없는 속 사정이 있었다. 당시 회사는 프로야구 출입기자단이 아니었던 까닭에 경기장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라운드 취재는 원천 봉쇄됐다. 취재



걸스데이 유라가 2013년 7월10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내 연습장에서 시구 연습을 하던 중에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팩트

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회사가 그간 경기장 밖 취재를 강조한 사실도 이 때문이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당시 인기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유라가 LG 트윈스 시구를 하러 온다는 소식을 알고 그의 소속사와 연락해 인터뷰를 잡았다. 연예부 기자도 아닌데 연예인과 인터뷰하는 상황이 멋쩍게 느껴졌다. 인터뷰 시작 전에 매니저와 만나 인터뷰에 대해 논의했다. 질의 내용을 보더니 대뜸 “이 질문들은 빼달라”고 했다. 인터뷰 시작도 전에 수정이라니. 마감이 급한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다. 자칫 인터뷰가 취소된다면 촉박한 마감 시간까지 새로운 인터뷰 대상을 찾아야 하는 수고로

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출입기자단이 아니었던 나로서는 인터뷰 장소도 고민이었다. 스포츠 기자라고 소개해놓고 연예인을 일반 커피숍에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비출입 기자단에게 주어지는 일일 프레스표로 잠실야구장에 진입한 뒤 야구장 내 회의실에 잠깐 들어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원래 회의실 출입은 사전 허가를 맡아야 한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인터뷰 도중 관련 야구장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끝에야 인터뷰를 겨우 마칠 수 있었다. 인터뷰 이후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라는 현타가 몰려왔다.

비풀단 야구 기자로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스포츠 기자 업계는 텃세가 유독 심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니라 보이는 차별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야구단 홍보팀도 풀단 기자를 먼저 생각했다. 어느 출입처나 마찬가지겠지만, 구단으로부터 모든 편의를 제공받는 풀단 기자와 달리 비풀단 기자는 야구장 입장 이후부터 모든 순간이 눈치 보기였다. 구단이 제공하는 식권을 가져가는 것도 신경 쓰였다.

2013년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끝나고 포스트시즌이 시작됐다. 경기장 그라운드 는 밟을 수 없어도 대목인 까닭에 현장 취재를 가야 했다. 관중석 일부가 비풀단 매

체에 배정됐고 이곳이 기자석이었다. 가기 싫었지만, 막내인 내가 당첨됐다. 일일 프레스를 발급받고 경기장 안으로 향했다.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일일 프레스 사진 속 나는 매년 심각한 표정이다.

관중석에 앉아 경기를 보면서 기사 쓰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저 건너편 명당인 기자석에서 여유 있게 경기를 보고 있는 풀단 기자들의 존재를 아는 까닭에 노트북을 덮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꿈이자 전부였던 스포츠를 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되뇌며 참았다.

관중석에 쪼그리고 앉아 경기를 보면서 기사를 썼다. 긴박한 순간마다 속보를 써야 하는 스포츠 기자에게 속도는 생명과도 같다. 더구나 관중석이어도 현장이었기에 데스크의 지시는 평소보다 더 잦았다. 데스크 지시가 이어질 수록 손가락 속도는 빨라졌고 심장소리는 더 크게 뛰었다.

기자를 시작하기 이전에 야구 경기에 몰입하고 즐거워하던 나는 이제 없었다. 홈런이 터지면 그게 바로 기사였다. 약간의 짜증이 밀려왔다. 경기를 즐기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이제 스포츠는 내게 일일뿐이었다. 관중석에서 관중과 함께 하는 기자. 그럴싸했지만, 당시에는 직접 경험할수록 그렇게 별로일 수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찾아왔다. 빠르게 기사를 여러 번 송고하고 나니 노트북 배터리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기자석이라면 노트북 충전기를 콘센트에 꼽으면 될 일이지만, 이곳은 관중석이었기에 콘센트가 있을 리 만무했다. 자칫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일 자체를 못하게 생긴 노릇이라 진땀이 흘렀다. 방법을 생각하다가 같이 취재를 간 후배와 함께 야구장 매점을 찾았다. 급한 사정을 설명하고 노트북 충전기를 매점 콘센트에 곧바로 꽂았다. 그러는 동안 야구장 내에서는 합성 소리가 들렸지만, 나갈 수 없었다. 또 한 번의 현타였다.

노트북 방전 위기를 겨우 넘긴 뒤 수차례 기사를 더 송고한 끝에 일과를 마칠 수 있었다. 어느 누구에게는 ‘가을 야구’가 소망이고 바람일 테지만, 당시 나에게는 현타의 공간일 뿐이었다. 한국시리즈까지 마친 뒤에야 고달팠던 관중석 취재는 끝이 났다.

스포츠 취재는 2016년까지 이어졌다. 출입기자단에 속했던 축구와 달리 약 3년이 넘는 취재 기간 동안 비출입 야구 기자로 살았다. 추후 제한적인 야구 취재 문화가 너무 싫어 한동안 야구가 TV 화면에서 나오면 꺼버렸고 야구장도 찾지 않았다. 말 그대로 질려버린 탓이다.

이제는 비출입 취재단에도 야구장 그



2013년 8월7일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SK 와이번스전이 열린 청주 야구장에서 6회말 이양기의 적시타가 터지자 1루 측 한화 응원석이 들썩이고 있다. 김광연 기자

라운드 취재가 제한적이지만 허용된다고 들었다. 취재 자체가 원천 봉쇄됐던 지난 날과 비교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다.

스포츠 업계를 떠나 다른 출입처에서 기자 생활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야구를 다시 보게 됐다. 취미 생활이었던 까닭에 이전 좋지 않았던 기억도 다 지워버렸다. 기자 초년생 시절 야구장 안 내용에만 매몰됐다면 지금의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을까 싶다. 돌이켜보면 당시 야구장 밖, 관중석 취재가 14년 차 기자로 크는데 좋은 자양분이 됐다고 믿는다.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기획력도 갖출 수 있었다.

무엇보다 모든 마음을 바쳐 내 팀을 응원하는 열성 팬들을 잊을 수 없다. 바

퀴벌레가 나오는 야구장을 찾으면서도 승패와 상관없이 고향팀 한화 이글스에 열렬한 응원을 보내던 팬,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를 아낌없이 사랑하던 팬, 20년 넘게 LG 트윈스만 바라봤다는 팬 등 이유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찼다.

지난해 통합 관중수 1231만명을 돌파한 국내 프로야구는 예나 지금이나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다. 경기를 보러오는 팬이 없으면 야구는 공놀이에 불과하다. 프로스포츠의 존재 이유는 결국 팬이다. 이러한 팬들과 함께 했던 지난날은 내게 있어 소중한 기억이다. 가끔씩 그 시절 야구장 밖, 관중석 취재에 열중하던 나를 떠올릴 때면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된다. 📖

▶조선 김광연 기자